



editage | Researcher.Life

피어 리뷰어를 위한 모범 사례집

목 차

- 01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피어 리뷰만 수락하기
- 02 철저한 이해를 토대로
원고의 논평 확인하기
- 03 체계적으로
논평 작성하기
- 0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논평 작성하기
- 05 잠재적 윤리 문제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 06 해당 시 반드시
긍정적 피드백 공유하기
- 07 전문적이고 정중한
어조 사용하기

서론

피어 리뷰어가 되는 것은 학문의 발전 최전선에 설 수 있는 특별한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피어 리뷰(동료평가)는 여러분이 공정하고 비판적인 논평과 피드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임을 인정받고, 연구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어 리뷰의 최대 목적은 해당 연구 논문이 저널에 출판될 가치가 있는지를 저널 편집자에게 추천해 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저널 편집자는 원고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층적인 평가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피어리뷰어의 의견은 저널 편집자 및 저자 모두에게 원고 수정 시에 필요한 논문의 질적 개선 방법과 원고가 거부되는 경우, 향후에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부정적인 코멘트가 연구자의 정신 건강과 연구 의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다음의 조언은 여러분의 리뷰가 유용하고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01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피어 리뷰만 수락하기

여러분은 연구 논문에 대한 피어리뷰(동료평가)에서 책임감과 성실성, 일관성 및 공감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만일 다음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동료평가 제안을 거절하시길 권장합니다.

1

상세하고 균형 잡힌 리뷰 제공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 판단되고, 편집자가 검토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없는 경우

2

익숙하지 않은 주제 영역의 원고이며, 가치 있는 논평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해 상충 문제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예를 들어 저자가 연구실 동료에 해당거나 지인인 경우

이는 피어 리뷰어가 염두에 두어야 할 윤리적 의무 사항입니다.

리뷰 제안을 거절할 때는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고, 저널 편집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편집자가 차후 리뷰 제안 시, 여러분의 전문성과 선호도를 고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리뷰 제안에 대한 수락 여부와 상관 없이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무응답은 전문성의 결여로 비춰져서, 리뷰에 대한 무관심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02 철저한 이해를 토대로 원고의 논평 작성하기

원고에 대한 이해 부족은 동료평가를 받게 되는 저자가 리뷰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부정적인 피드백 공유로 이어질 수 있지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전체 원고를 충분히 읽어야 합니다. 동료평가 과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경우, 원고와 의견을 한 번 이상 검토합니다. 언어 품질이 떨어져서 논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부분을 언급하기 바랍니다.



03 체계적으로 논평 작성하기

검토하는 논문이 해당 영역의 기존 지식에 기여하고, 청중의 흥미를 유도하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메이저 및 마이너 코멘트로 논평을 분류하여 특정 측면에 대한 동료평가 의견을 작성합니다.



많은 저널에서 피어 리뷰어의 논평 작성 양식이나 틀을 제공하며, 리뷰어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0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논평 작성하기

훌륭한 연구자의 과학적 주장은 철저한 논리적 추론과 근거를 통해 뒷받침하듯이, 훌륭한 리뷰어는 구체적인 근거로 원고에 대한 논평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자의 큰 노력이 요구되는 큰 수정 또는 추가 실험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저자에게 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저자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간략히 제시합니다.



05 잠재적 윤리 문제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연구 논문에서 잠재적인 윤리 문제, 가령 표절을 발견하는 경우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발견한 정확한 사례와 그 이유를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피어 리뷰어로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저널에서 리뷰어가 편집자에게만 비공개 논평을 공유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논평은 저자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논평을 통해 편집자에게 주요 이슈를 보다 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논평일지라도 가능한 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6 긍정적 피드백 공유하기

연구 논문 검토에서 리뷰어들은 종종 논문의 오류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하다가, 긍정적인 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문에서 긍정적인 성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언급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칭찬할 것이 별로 없는데 억지로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자의 연구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며, 향후 해당 피드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07 전문적이고 정중한 어조 사용하기

피어리뷰는 노력이 많이 들고, 검토의 질이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리뷰어는 종종 인간적인 요소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평가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가능한 한 정직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리뷰어로서 공감을 표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코멘트를 읽는 대상은 사람이며,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읽고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저자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피드백에 사탕발림하거나,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히 전문적인 태도로, 가능하면 저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자를 개인적으로 비판하거나 무례하게 느껴지는 어조("the author should have" 또는 "the author should not have")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은 논문의 내용과 생각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 중립적이고 거칠지 않은 단어로 의견을 표합니다. 예를 들어, "말이 안 되는(makes no sense)", "가치 없는(worthless)" 또는 "출판할 수 없는(unpublishable)"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논평과 함께 사용하는 느낌표는 감정을 강하게 표시하므로 전문적인 피드백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어조의 경직감을 더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논평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 여러분은 여러 제약 사항, 특히 시간 제약에서 작업하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질이 낮은 원고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짜증과 좌절의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 즉시 바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널에 보내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하세요.



또한 저널의 편집자가 의견을 검토하고 나서, 평가의 표현 방식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리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을 의미합니다. 편집자가 어조를 중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상적으로는 리뷰어의 논평에 편집이 필요 없어야 하므로, 리뷰어가 미리 이를 숙지하고 검토 과정에서 수행하는 쪽이 좋습니다.

피어리뷰(동료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계속해보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본인의 연구 논문, 연구보고서에 대한 논평, 검토 보고서를 통해 배울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피어리뷰 샘플을 살펴보면서 피어 리뷰어로서의 훈련 기회를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피어 리뷰 하세요!

editage insights

캐터스 커뮤니케이션즈의 플랫폼 에디티지 인사이트는 글로벌 다국어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연구자 여러분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 학술 연구 및 출판에 관한 풍부한 무료 리소스
- 학술 출판 분야의 최신 동향 및 발전에 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 연구자, 편집자, 리뷰어 및 학술 출판 관계자의 견해와 관점
- 무료 Q&A 포럼을 통한 학술 출판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

